

현안과 과제

■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목 차

■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과거 무역전쟁의 경험	2
3. 글로벌 무역전쟁의 세계 및 한국 경제 파급 영향	4
4. 시사점	8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 오 준 범 선 임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
 : 신 유 란 연 구 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외

Executive Summary

□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 개요

트럼프 美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국은 국부펀드의 미국 사모펀드 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전쟁이 발생할 시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과거 무역전쟁의 경험

과거 무역전쟁이 발생했던 사례는 대공황 시기가 대표적이다.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하였다.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경쟁적 자국 통화 평가절하로 세계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약 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 줄어들었다.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을 가져왔다. 세계 산업생산은 경제가 정점이었던 1929년 6월 대비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줄어들었고 주식시장은 1932년 6월에는 약 70%까지 위축되었다.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주요국에서 실업자들이 급증하였다.

■ 무역전쟁 예상 시나리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예측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 무역전쟁이다.** 미국의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인상과 이에 대응한 EU,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보복적 관세 부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지적 무역전쟁으로 상대국 간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무역전쟁이다.** 국지적 무역 전쟁이 확대되며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로 관세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과거 사례인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영역을 자국 상품으로 대체한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이 훼손되며 WTO를 통해 이루어진 세계 무역의 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무역전쟁의 세계 및 한국 경제 파급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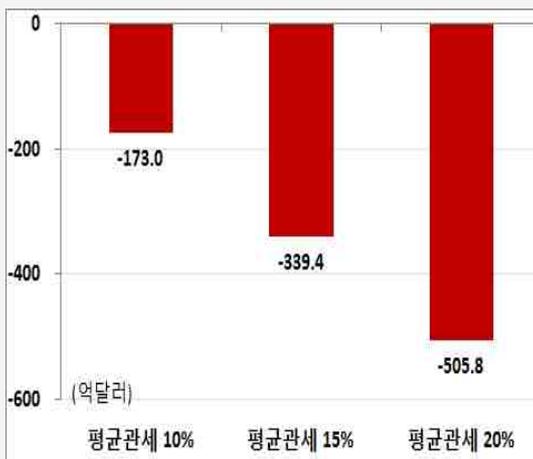
무역전쟁이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편의를 위해 국지적 무역전쟁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전 세계 평균 관세율 1%p 인상 시 교역량은 0.58% 줄어들며 개도국의 경우 교역량은 0.30% 줄어들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 수준인 4.8%에서 평균 관세가 10%로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2.5% 줄어들며 평균 관세가 20%로 높아질 경우 국가 평균 교역량은 7.3% 급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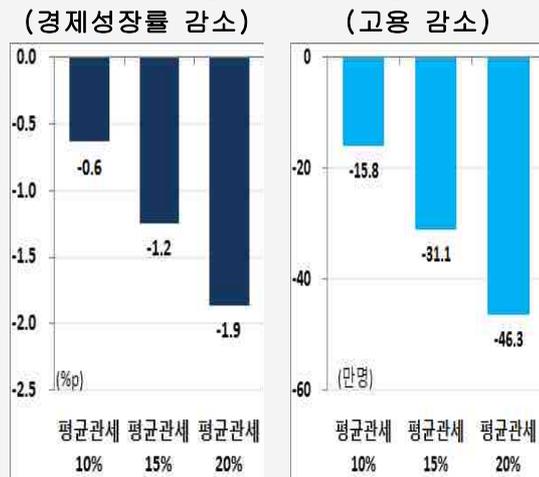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은 국내의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외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실물경제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인 4.8% 수준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173.0억 달러 줄어 들고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 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국개방경제인 국내의 경우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국내 경제성장률 0.6%p 하락, 15%로 오를 시 경제성장률 1.2%p 하락, 20% 인상 시 경제성장률 -1.9%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고용 15.8만명 감소, 15%로 오를 시 고용 31.1만명 감소, 20% 인상 시 고용 46.3만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글로벌 무역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 글로벌 무역전쟁이 한국 GDP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시사점

미국발 통상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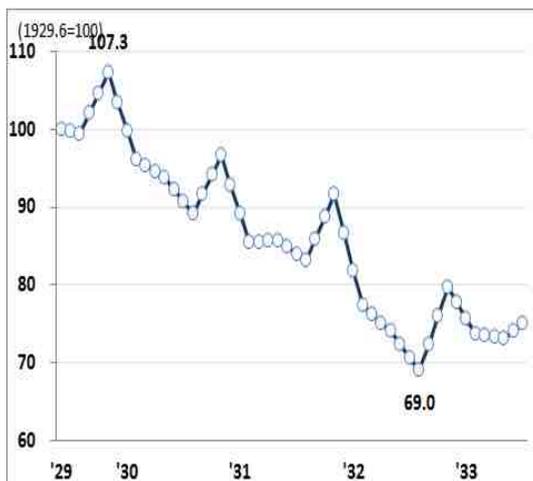
-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지속해왔으며, 미국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점**
 - **트럼프 美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토대를 둔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산 제품 구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확대 등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정책을 선언
 - 이후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는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
 - 또한 태양광 모듈, 세탁기 등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철강, 화학제품 등에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던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이 최근 사임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 증대
 - **미국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EU·중국은 이에 반발해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점**
 -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하여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한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가 이번 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에 포함되며, 캐나다, 호주, 멕시코는 관세조치 부과 대상국에서 무기한으로 제외하기로 결정
 - 이에 대응하여 EU는 미국산 쌀, 주방용품, 화장품, 위스키, 의류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중국은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Blackstone)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으며, 미국 국채 매각 및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존재
-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전쟁이 발생할 시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함**

2. 과거 무역전쟁의 경험

○ 대공황 당시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세계교역량은 1β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실물경제 위축 및 경기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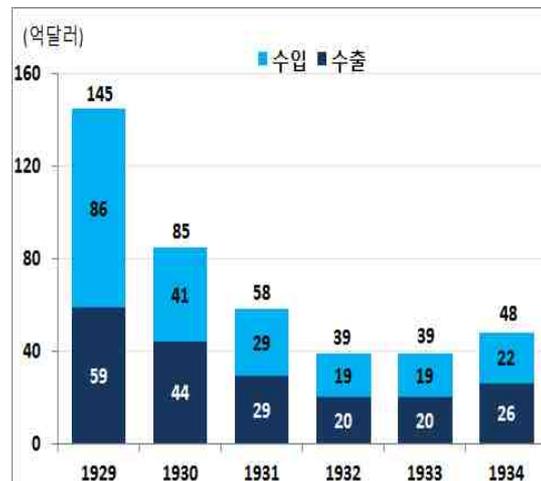
-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안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
 - 스무트-홀리 법안은 1930년 6월 17일 발효되었으며 2만 1,000개의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인상
 - 스무트-홀리 법안의 평균 관세율인 60%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입 관세를 높이며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음
-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주요국들의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등으로 대공황 당시 세계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약 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 축소
 -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기가 정점이었던 1929년 6월 대비 세계교역량(물량 기준)은 1년 후 약 8% 줄었으며 1932년 8월에는 약 31% 감소
 - 금액 기준 세계교역량은 1929년 1분기 약 84.4억 달러에서 1933년 1분기 약 30.4억 달러로 60% 이상 감소
 - 미국의 교역량은 금액 기준으로 1929년 약 145억 달러에서 1932년 약 39억 달러까지 감소

< 대공황 당시 세계 교역량 추이 >



자료 : Eichengreen, O'Rourke(2009) 인용.
주 : 물량기준.

< 대공황 당시 미국 교역량 추이 >



자료 : BEA.
주 : 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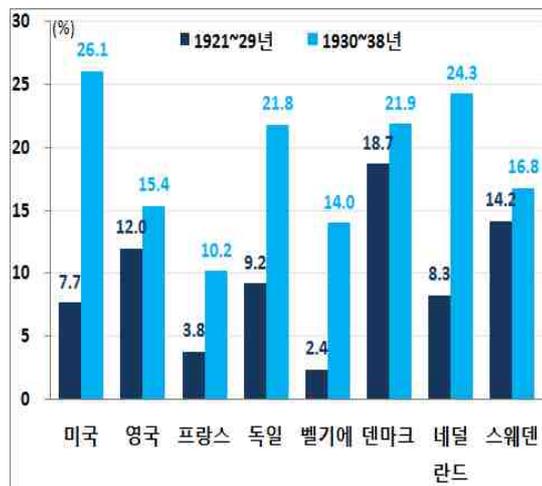
-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큰 타격
 - 세계 산업생산은 1929년 6월과 비교하여 1년 후 약 15% 감소하였으며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감소
 - 세계 주식시장은 1929년 6월 대비 1년 후 약 20% 줄어들었으며 1932년 6월에는 약 70%까지 줄어들음
-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 실업자들이 급증
 - 미국의 경우 대공황 이전 제조업 실업률은 약 7.7%에서 대공황 기간 26.1%까지 급증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실업률 역시 크게 늘어남
-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세계교역량을 급감시켜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로 이어짐
 - 미국의 스무트-홀리 법안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여타 국가로 빠르게 퍼지며 세계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파국을 맞았던 과거 경험을 피하고자 WTO를 통해 세계 무역 질서의 기초를 세우고 자유무역기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 대공황 당시 세계 산업생산 및 주가 추이 >



자료 : Eichengreen, O'Rourke(2009) 인용.

< 대공황 당시 주요국 제조업 실업률 변화 >



자료 : 양동휴(2000) 인용.

3. 글로벌 무역전쟁의 세계 및 한국 경제 파급 영향

1) 무역전쟁 시나리오

- 향후 예상되는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미국, EU, 중국 간 국지적 무역전쟁과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무역전쟁 등 2가지 가능성

① 국지적 무역전쟁 시나리오

- 미국의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와 이에 대응한 EU, 중국 등의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보복적 관세 부과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EU와 중국은 미국의 철강관세에 상응한 보복관세 부과에 착수
 - 일부 품목에서 시작된 보복관세 부과가 이들 국가들의 전체 수입품으로 확대되는 것으로서 특히 미국-EU, 미국-중국 간의 상호 교역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를 가정
 - 이 경우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은 유지되겠지만, 경제 대국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구축한 글로벌 경제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

②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

- 국지적 무역 전쟁이 확대되며 미국, EU,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을 일으켜 자유무역기조가 위축
 -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과거 사례인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
 -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영역을 국내 상품으로 대체
 -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이 훼손되며 WTO를 통해 이루어진 세계 무역의 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위축

2) 파급 영향 분석 방법

- 파급 영향 분석은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로 전 세계적인 관세 인상과 이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 그리고 한국의 수출 감소 및 GDP 감소분을 추정
 - 분석 편의를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무역 전쟁 시나리오를 가정
 -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EU, 중국 간 보복적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전쟁으로 확대
 - 국가들이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높일 경우 나타나는 주요국 및 글로벌 교역량 감소를 추정한 후 이에 따르는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전 세계의 경쟁적인 관세 인상은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 중 대외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수출과 GDP가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
 - 분석 방법은 국가의 불균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 분석 기간은 1988년부터 2016년까지며 분석 대상은 자료가 존재하는 선진국 35개국, 개도국 171개국 등 총 206개 나라임
 - 수출 관련 선행연구들의 모형에 사용된 통제변수들에 관심변수인 관세율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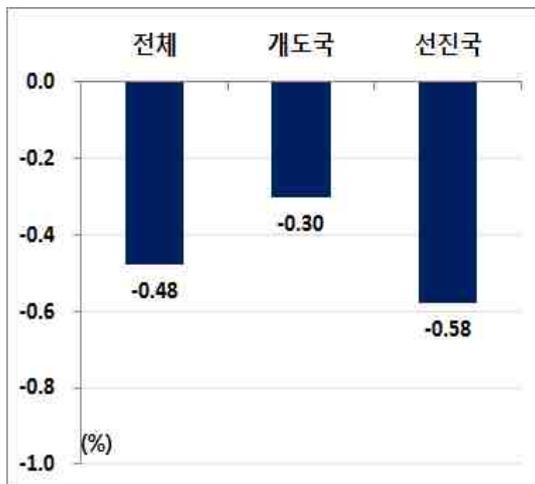
< 글로벌 무역전쟁의 국내 파급 경로 >



3) 글로벌 무역전쟁에 따른 파급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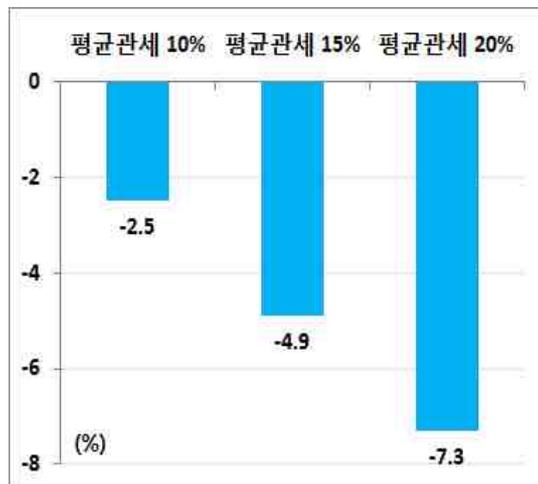
- (관세가 국가 교역량 미치는 영향) 관세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 세계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약 1%p 높아질 때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적으로 약 0.48%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
 - 선진국의 교역량은 관세율이 약 1%p 높아질 때 약 0.58%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개도국의 교역량은 관세율이 약 1%p 높아질 때 약 0.30%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
 -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의 현재 수준인 4.8%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세계교역량은 -2.5%, 15%로 높아질 경우 세계교역량은 -4.9% 감소
 -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이 20%로 크게 올라갈 경우 세계교역량은 7.3% 급감할 것으로 예상
 - 분석은 관세율 인상 효과만을 고려한 것이며 실제 글로벌 무역전쟁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적 자국통화 평가절하,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글로벌 무역전쟁은 경제적 파급력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

< 평균 관세율 1%p 인상이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관세율 인상폭에 따른 국가 교역량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2016년 전 세계 평균관세율인 4.8%에서 평균관세 10% 15%, 20%로 변화했을때 세계 교역량 감소분.

○ (국내 경제 영향)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며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감소 등의 충격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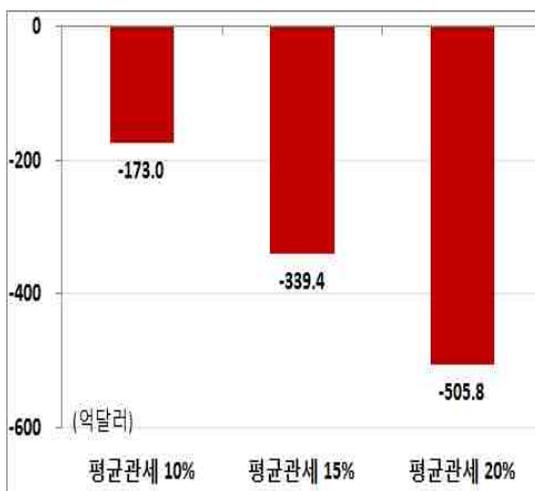
- 글로벌 무역전쟁 영향이 확대될 경우 외수 부문에 노출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액이 크게 감소

-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인 4.8% 수준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173.0억 달러 줄어들고 15%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339.4억 달러 감소
-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 달러 줄어드는 효과

- 소국개방경제인 국내 특성 상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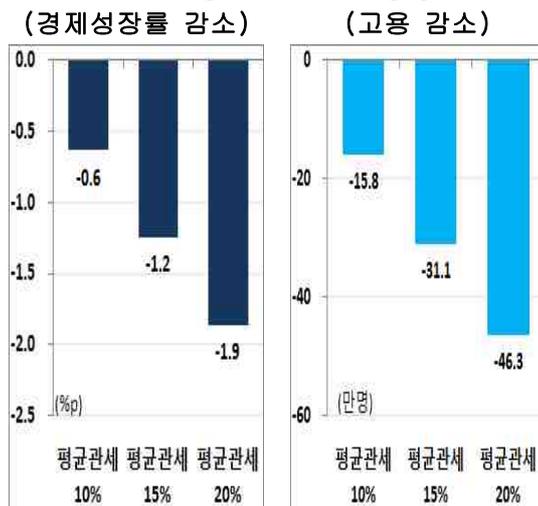
- 전 세계 평균 관세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1)은 현재 평균 관세율(4.8%)에서 10%로 인상 시 경제성장률 0.6%p 하락, 15%로 오를 시 경제성장률 1.2%p 하락, 20%로 인상 시 경제성장률 -1.9%p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인 4.8%에서 10%로 인상 시 고용 15.8만명 감소, 15%로 오를 시 고용 31.1만명 감소, 20%로 인상 시 고용 46.3만명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무역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2016년 전 세계 평균관세인 4.8%에서 평균관세 10% 15%, 20%로 변화했을 때 국내 수출 감소분.

< 글로벌 무역전쟁이 한국 GDP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2016년 전 세계 평균관세인 4.8%에서 평균관세 10% 15%, 20%로 변화했을 때 국내 경제성장률, 고용 감소분.

1) 김동석(2004)를 기반으로 수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2017년 금액을 기준으로 환율, 부가가치 유발계수, GDP디플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계산.

4. 시사점

○ 미국발 통상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뿐만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에 악영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전 세계로 자국주의가 확산될 경우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 현재의 무역 전쟁이 확산되어 현실화, 구체화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주체 심리를 위축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
-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하방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 최근 세이프 가드, 관세 인상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는 중국, 유럽 등과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함

-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상 노력이 필요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위해 다자국 공동 대응을 통해 미국을 압박

- 글로벌 기술 표준화 구축, 상호인증제도 도입 확산 등을 통해 국제 통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

둘째,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수출국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보호무역 조치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

- 정부부터 민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특히, 미국 내에서 의회, 소비자 단체, 기업협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트럼프 조치의 부당함과 한미 FTA의 양국 경제적 효과 등을 알려 미국 내부의 목소리를 활용
 - 또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차세대 신산업을 제시하는 등 미래 협력 과제를 발굴해야 함

- 정부는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통상 관련 인력 확충 등 통상 전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통상정책 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국가 차원의 통상 교섭 능력을 확충

- 기업은 제품에 대한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의 무역 정책 및 법제도 검토가 필요
 - 특히 보호무역에 대한 현지 언론과 소비자의 동향을 살피고, 현지 기업들과 기술 제휴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셋째,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 강화가 필요
 - 특히 인도,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

- 글로벌 무역 및 환율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결합하지 않도록 국내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
 -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의 관리를 통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HRI**

김천구 연구 위원 (2072-6211, ck1009@hri.co.kr)

오준범 선임 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신유란 연구 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홍준표 연구 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정민 연구 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김수형 연구 원 (2072-6217, soohyung@hri.co.kr)

【별 첨】 글로벌 무역전쟁이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

① 분석방법

- 분석기간은 1988년부터 2016년까지며 분석대상은 자료가 존재하는 선진국 35개국, 개도국 171개국 등 총 206개국에 대한 불균형패널 자료임²⁾
- 종속변수로 국가별 수출과 수입을 합친 총교역량이고, 설명변수로 국가별 평균관세율과 국내총생산(GDP), 국가별 개방 정도를 통제하기 위한 Chinn-Ito 자본개방지수, 그리고 금융위기 연도 더미 등을 포함
- 평균관세율은 국가별, 연도별로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2년 이내 결측치에 대해서만 선형보간법을 적용함
- 추정방법은 내생성을 고려하여 동태적 패널회귀모형을 사용하며, 시스템 GMM(Arellano-bond estimator) 방식으로 추정함

② 모형

·

$$\ln trade_{i,t} = \alpha + \beta_1 \ln trade_{i,t-1} + \beta_2 tariff\ rate_{i,t} + \beta_3 \ln GDP_{i,t} + \beta_4 Financialopeness_{i,t} + \beta_5 d_crisis_t + \beta_6 d_developed_i + e_{i,t}$$

- trade: 국가별 교역량, tariff rate: 관세율,
- GDP: 국내총생산, Financialopeness: Chinn-Ito 지수,
- d_crisis: 금융위기 더미, d_developed: 선진국 더미, e: 오차항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2014.10)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분석기간 전체를 선진국으로 분류함.